

김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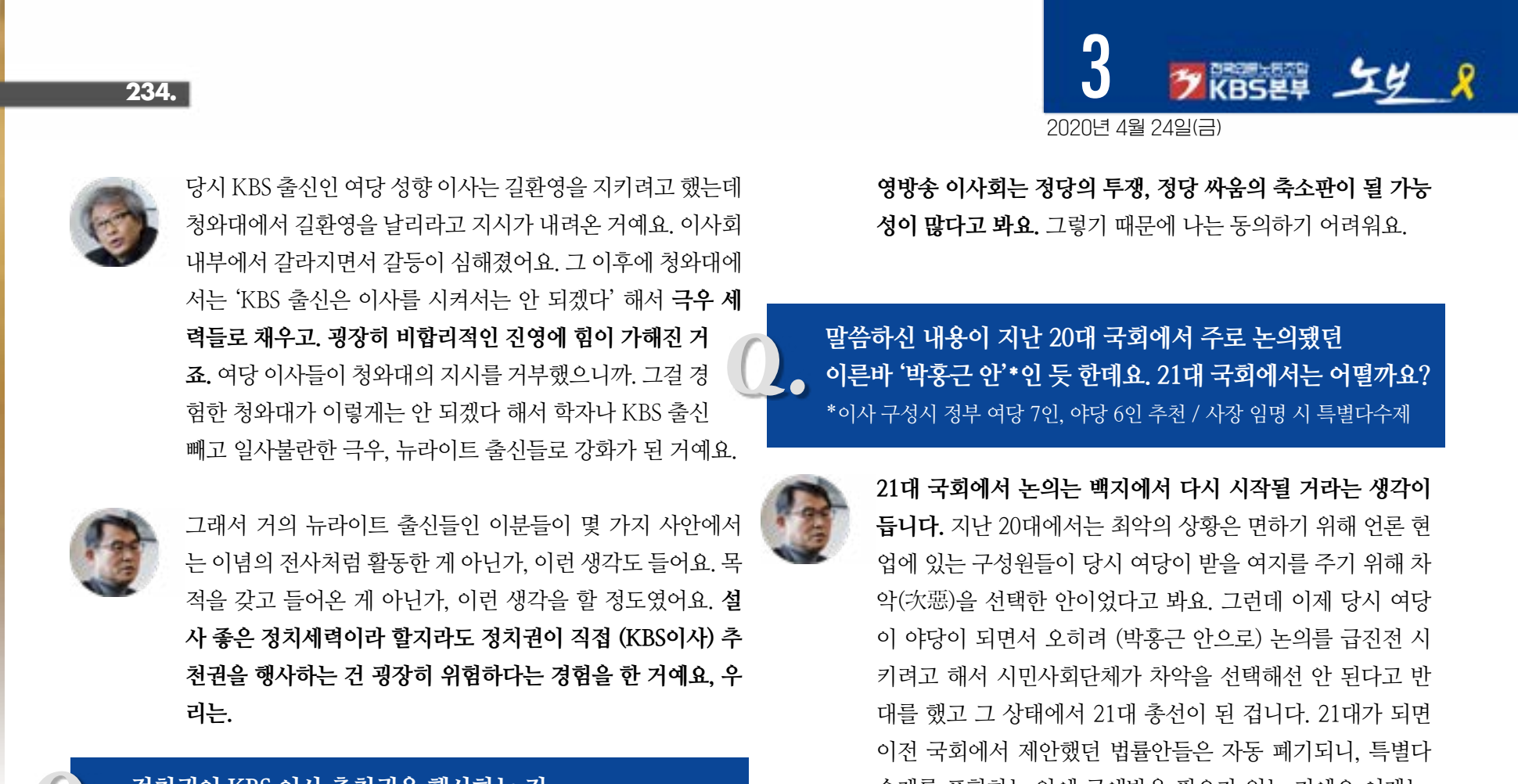
現 성공회대학교 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前 KBS 이사회 이사 (2015.9~2018.8)
前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前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전영일

現 한국노동복지센터 상임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前 KBS 이사회 이사 (2015.9 ~ 2018.8)
前 KBS 노동조합 위원장 (1995 ~ 1997)
1976 KBS 입사(공채 3기) ~ 2010 퇴사

전임이사

KBS를 말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송법을 그렇게 쉽게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홍근 안을 놓고.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회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옳은 안으로 갈 때, 민주당이 만약에 제대로 판단만 한다면 (그 안을)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지금의 KBS는 어느 지점에 와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저희 노동조합은 앞으로 뭘 하면 될까요?
정당 정책협약은 맺었고, 국회가 열리면
간담회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결국에 중요한 건 현재 KBS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예요.
KBS 신뢰도가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7위, 8위, 9위에서 벗어난 적도 있잖아요. KBS의 또다른 문제는 재정 문제인데, 지금 흐름대로면 내년 광고료가 1,000억 원대로 빠질거고 수신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살 길이 없어요. 수신료를 얘기하려면 보도 신뢰성을 갖춰야 하는데, 지난해 말 김경록 인터뷰 건 등을 지나면서 진보계층들이 KBS를 불신하게 만드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봐요. 수신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6,500억 원의 수신료 받고, KBS 기차량 PD가 1,000명이죠. JTBC는 기자가 120명이예요. 숫자가 거의 뭐 7~8배면 명실상부하게 진보권 보수권, 상당한 다수가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람들의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신뢰도가 저렇게 높았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의 보도는 선을 넘는 보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큰 의제들에 관해서 KBS가 정보보다 더 **옳은 방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FTA인데, KBS가 FTA 관련 뉴스를 내보낼 때 작은 사안들 가지고 “정부가 이거는 어땠네”, “이것에서 거짓이 있었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FTA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식의 접근이 있었던 거죠. 단기간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옳았다는 얘기를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그때 단일 사안 중심으로 폭로식 보도를 하고 있는 건가 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김경록 PB 보도도 그 당시에 크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김경록이라는 사람은 결코 옳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김경록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중에 ‘전체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포함시켰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번에 총선에서 조중동 등이 정부를 얼마나 비판, 매도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판을 지탱해준 건 KBS, MBC, YTN같은 공영 언론이예요. 그 점에서 이 공영 언론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조합원들도 본부노조라고 전부 호응해서는 안돼요. 조합원이 하는 것들도 사리에 안 맞다고 보이면 비판해야 해요. 우리 조합원이라도 잘못하면 사측에 징계하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엄정함이 필요해요.



공영방송 구성원이라면 ‘우리 시대의 화두’를 고민해야...



그것과 관련해서, KBS 구성원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즉 화두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모든 프로그램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의 아주 그 눈에 보이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제 결국 전체 큰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 사회에서 고민이 될 지점이 뭔가를, 어떤 특정 정파의 유불리가 아니라 그런 화두를 가졌으면 해요. 심지어 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당 방송’이다, ‘야당 방송’이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방송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진짜 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인 주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점점 더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은, 특히 공영방송은 바로 민주주의 주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더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화두를 계속 던져야 되는 거죠. 있는 사실을 그냥 있는 대로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는, 언론으로서 아주 원초적인 기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안에서 해낼 것인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완성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공영방송 구성원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n분의 1이 돼서는 안 돼요. 출입처에 따라가는 보도가 아닌 우리 사회 개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개혁, 검찰 개혁, 언론 자체 개혁, 이런 것들을 KBS가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KBS가 뭐가 좀 다르다, 하는 걸 보여줘야죠.

KBS에 대한 비판 나올 때 ‘집단의 반성’ 할 수 있어야



KBS에 대한 제도개혁의 방향은 무엇이어서 할까요?



KBS가 원하는 공영 방송의 모습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들에 관해서 꾸준히 얘기하는 건 좋지만, KBS가 그것을 ‘KBS의 목소리’로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개혁위원회 같은 사전 논의 기구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그게 필요하다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KBS를 포함한 우리 사회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를 고민하는 와중에 공영 방송으로서, KBS에게 필요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KBS의 요구 사항들 있잖아요 수신료 문제라든가 그런 건 결국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야 돼요. 위기 때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들이 많아야 하고, 말하자면 평상시에 그 덕을 쌓아 가야죠. (웃음) 또 보도 제작물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이 나왔을 때 KBS가 너무 발끈해요. 이런 언론 자유 침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정말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집단의 반성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KBS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보시나요?



상대적으로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제일 달성한 상태 아닐까요. 정연주 사장 시절에 독립적이었다는 기억을 갖는 구성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도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정연주 사장이 막아줬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정치권이, 여권에서 KBS한테 문제 제기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 점은 분명하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집권 세력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정부나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면도 있어요. BBC의 경우 아예 국회에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BBC는 공정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건 제도가 어떻긴 간에 사장에 임명이 되면 사장이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면 관행이라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으로 오는 사장이 ‘내가 임기를 이것만 하고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외부로부터 압력을 버텨주고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관행이 되고 이것이 제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버텨줄 사장을 어떻게 뽑는 방법이 있을까? 그중

의 하나가 나는 시민이 관여하는 사장 뽑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관행이지만,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이 필요한 거죠.



공영방송‘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영방송‘답기’ 때문에 KBS를 살리자는 말이 나오도록



마지막으로 KBS 구성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KBS가 공영방송답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해요. 지금은 단지 공영방송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주면 KBS 정말 공영방송답게 잘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KBS를 살려야 되지 않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KBS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KBS 구성원들의 일부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KBS로서의 가치가 있어야죠. 고대영 사장 때 매일 논쟁을 했던 게, 고대영은 “우리가 시청률이 최고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무슨 소리냐, 시청률만 높지 하깨비 방송이고 신뢰도가 지금 몇 프로까지 떨어졌냐”고 계속 끊임없이 싸웠던 문제예요. 결국은 신뢰도죠, 믿을 수 있게 해야 해요. n분의 1이 돼서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활활 타올라
한 줌 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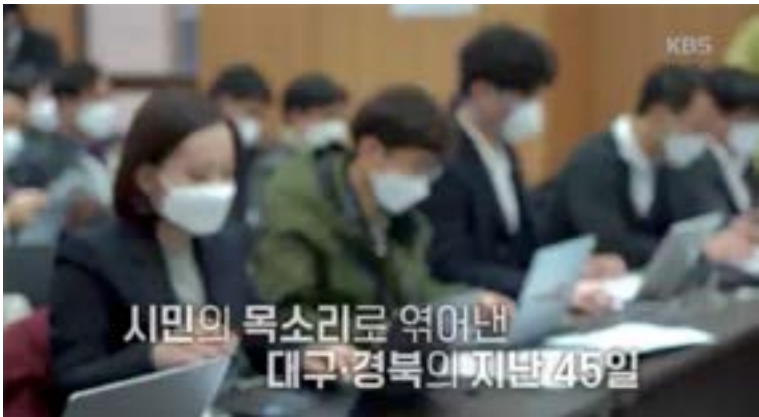


대구경북지부 정현진 조합원
(대구충국 / PD)

“이거 재난영화인가?” KBS대구충국 방송에 출연한 모 씨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이어 그와 접촉한 대부분의 제작진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 버린 상황. 홀로 남은 초짜(?)제작부장인 나는 자가 격리에 들어간 제작진들이 음성 판정을 받고 돌아올 때 까지 본사 참여며 보도국 지원 등을 온몸으로 막으며 버텨야했다. 자가 격리중인 제작진이 돌아온 이후의 기획까지 고민하면서..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된 제작진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일상의 연속, 이런 비상시기가 하더라도 무섭게 변저가는 바이러스의 전파속도만큼이나 시류를 놓치지 않는 콘텐츠가 나와 줘야한다. 언론에서 주목하는 쟁점도 빠르게 변해간다. 6개의 아이টে을 추려 후배들이 돌아오자마자 이를 배분했고 PD들은 현장으로 향했다.

후배들은 용감했다. 주어진 아이টে과 현장취재 이외에도 늘 한걸음 더 들어가려했다. 어떤 후배는 장애인 코로나19 격리자의 비참한 현실, 감염에 노출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어떤 후배들은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수를 끌어올렸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생방송은 각본없는 드라마였고, 대구의 취재현장을 집대성한 편집은 <나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한편의 다큐멘터리로 재조명되었다.



우리는 활활 타오른 뒤 까만 장작이되었다. 그리고 이어진 총선방송. 이순간들이 지나면 이제 하얗고 보얀 재가 될지 모르겠으나, 또 그 재가 거름이 되어 꽃이 필 날도 있지 않을까...횡설수설했다. 이제 진짜 가야겠다. 다시 현장으로.

P.S / 대구충국 1인 유튜브 팀을 꾸려나가느라 고생하고, 정은정 본부장 기획 콘텐츠로 92만 뷰를 찍은 정봉찬 감독,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중편이다 뭐다 물심양면 도와준 홍승현 감독, 그리고 대구의 모든 카메라 감독님들, 아나운서들, 기술 감독님들, 총무국 선후배님들, 총국장님. 다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19로 보도국과도 친해진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확진자라고요?...@.@



취재구역 유호운 조합원
(보도본부 / 취재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에 급파돼 공적 마스크 판매 취재를 마무리할 즈음 혼잣말을 하고 홀연히 지나가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확진자인데 마스크도 못 샀네.”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확진자인데 설마 돌아다니лка? 그래도 혹시? 그 남성을 불러세워 물었습니다. “확진자라고요?” 돌아온 답은 “아침에 확진자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마스크를 사러 나왔다”였습니다. “확진자면 집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된다. 돌아가서 절대 나오지 마시라”고 돌려보냈지만 웬지 찝찝했습니다.



만약 진짜 확진자라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취재진도 혹시 감염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 그러나 그 남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우체국 근처에 산다는 것과 오늘 아침 확진 통보를 받았다는 것. 구청에 연락해 오늘 확진 통보를 받은 60대 이상 남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은 딱 2명.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구청에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개운치 않아 경찰에 촬영 영상과 의심되는 2명의 이름을 전하고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문제의 남성을 찾았습니다. 그 남성은 취재진이 경찰에 전달한 2명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여전히 사람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성은 결국 강제 격리됐습니다. 구청에 거짓말 하고 거리를 활보했던 이 남성은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취재진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그 남성은 위험한 외출을 계속했을 겁니다.

취재진은 사건 이후와 서울 복귀 뒤 총 2번의 검사에서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은 하고 싶지 않은 아찔한 경험이었지만, 확진자를 끝까지 확인해 확산 위험을 낮춘 건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잊지 못할 그 날..2월 18일



대구경북지부 박진영 조합원
(대구충국 / 취재기자)

첫 날

2월 18일. 선배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대구의료원. 31번째 확진자가 있는 곳이었지만 한산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서 밀접접촉자를 태운 구급차 수십 대가 들어닥쳤다. 밤10시, 중계차 참여를 마치고 긴장이 풀어질 찰나, 선배로부터 도착한 문자 한통.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유증상자 검사 중

공포

다음날 ‘3~4명일 거야’ 하던 생각을 비웃듯 확진자 수는 18명, 다음날 51명, 또 83명..2백 명...비현실적인 숫자가 이어졌다. 대구충국은 전시체제로 돌입했다. 공포를 느낄 순간도 없이 모든 직원들이 현장으로 뛰어 들었다. 청도 대남병원과 신천지 교회를 찾아가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중계 시 마스크 착용여부가 통일되지 않는 등 현장의 취재진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회사 로비에서 켄 체온이 39도. 아뽀싸. 선별진료소로 갔고 폐렴 X-레이를 촬영했다. 결과적으로 감기몸살이었으나 이틀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내가 만든 뉴스의 가치

감염병 공포를 직접 겪고 보니 나에게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다. 재난방송주관 방송사로 어떻게 뉴스를 만들어야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실제로 대구경북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KBS에 크게 의존했고 때로는 응원과 위로를 받았다.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단계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비교적 안정단계에 접어들었고 시민들의 생활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졌다.



다시 첫 날

코로나 19이후 사회 많은 부분이 바뀔 것이다. 입사 1년차인 나에게도 KBS기자로 매일의 뉴스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것인지하는 큰 숙제가 생겼다. 다시 2월 18일 코로나19 취재현장에 투입되던 첫 날. 그 선배가 보낸 두 번째 문자 메시지.

당장 힘들겠지만 이 재난상황에서
네가 뭘 배워야 할지 생각해봐.

다큐멘터리 3일 대구 취재기

대구로 달려온 그들

-작은 영웅들과 함께한 72시간



시사교양구역 배용화 조합원
(시사교양2국 / PD)

‘공포는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퍼진다’라는 말의 위력을 실감했다. 취재진의 안전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 그래도 누군가는 가야만 하는 상황.



우여곡절 끝에 내려간 대구의 첫 인상은 상반된 두 얼굴이었다.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비어버린 가게와 거리. 보이지 않는 적과 매일 포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병원의 모습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풍경이 공존하는 대구의 두 얼굴이었다. 실상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대구는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지만 환자를 직접 만나 얘기하고 진료하는 의료진들에게는 그냥 일상을 사는 곳이었다.

취재하는 3일 동안 오전6시부터 밤10시까지 자는 것외에 의료진과 똑같은 생활을 했지만 마지막날은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몇주째 견뎌내는 이들이 있었다.

미디어도 보고싶은 것만 보는 것일까? 아니면 보고도 못본 척 하는 것일까? 감염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미디어가 대구에 대한 이미지를 공포와 혼돈으로 몰고 갈 때 한견에서는 집단 휴머니티가 작동하고 있었다. 연대와 협력이라는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었다. 이번 취재는 진짜 대구의 모습을 담아냈다는 자부심이 크다.

취재진이 매일 대구에서 고속버스로 촬영원본을 보내면 밤을 새워 육구슬로 만들어 준 동료 피디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코로나19 재난방송 무엇을 남겼나?

재난방송, 누구와 경쟁할 것인가?



익명 조합원 기고

사실, 세월호 '보도참사' 이후 재난방송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코로나19 확산에 KBS가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주관방송사에 걸맞는 역할을 했느냐 평가하긴 아직 이른 것 같다. 욕을 들어먹는 일은 없었지만, 과연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터다.

그럼에도 지금 단계에서 코로나19 재난방송은 KBS에 몇 가지 과제를 남겼다. 먼저 누구와 경쟁할 것인가이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급증하던 시기, 지방자치단체마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진자 상황과 동선을 공개했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했던 이들에게 방송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시청자들은 본인의 주변 현상이 궁금하지만, 지역총국이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주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레거시 미디어의 약화가 재난방송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 일부 총국은 자치단체의 브리핑을 중계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보도보부에 서도 지역 총국에 요청한 건 '지역현황을 요약해서 특보에 참여해 달라'는 수준이었다. 중계, 중계, 중계, 또 중계. 중계는 가장 효율적으로 공식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지만 그만큼 방송자원의 제약조건이기도 했다. 중계식 보도에 치중하다보니 방역당국의 발표에 대한 검증보도, 추적보도는 쉽지 않았다.

셋째,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재난방송 체제에서 총국의 자원 집중이다. 알다시피 재난방송은 보도부문만의 업무가 아닌 KBS 전체의 업무여야 한다. 때문에 전국적인 재난방송 체제에서 각 총국은 모든 자원을 적재적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렇게 장기간 재난상황이 이어지는 국면에서는 보도뿐만 아니라 편성 부문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들의 정보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예측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종식되지 않을거라 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세월호 보도참사와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세월호 이후 재난방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따지기보다 기존과 다른 재난방송을 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코로나 19 재난방송 현장의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제6대 집행부 출범 100일

언론노조 KBS본부가 걸어온 길



언론노조 KBS본부 제6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넘어섰습니다. 짧은 패기로 출발한 6대 집행부에게 지난 100여 일은 짧았지만 매순간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6대 집행부의 공식 출범 전부터 해결을 요하는 현안이 빚발쳤습니다. 지역뉴스7 확대를 위한 인력충원 문제나 방재 공조 업무 이관 이슈는 제대로 집행부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6대에 던져진 첫 숙제였습니다. 최근까지 계속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은 조합원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된 중요 문제였고, 최근 본부노조에서 제기한 복지자금 고갈 문제 역시 조합원들의 복지 손실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여서 본부노조가 눈감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6대 집행부는 보궐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정당 후견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투쟁을 넘어 4.15 총선을 기점으로 언론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을 포

함한 5개 정당과 협약을 체결한 8대 미디어 정책과제에 KBS지배구조 개선을 포함시키는 등 방송독립을 위한 투쟁의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6대 집행부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하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6대 집행부는 지난 100일 동안 그래왔듯이 흔들림 없이 조합원 여러분과 어깨 곁고 뚝뚝뚝 걸어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6대 집행부 성과

2020. 1. 3.

지역방송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
지역뉴스7 데일리 전환을 앞두고 현장 요구인력인
취재기자 14명, 촬영기자 9명 총원 합의

2020. 1. 14 ~ 28.

방재·공조업무 업무이관 계획 공식 철회
경영본부장/전략기획실장 등 6차례 면담/협상 진행

2020. 2. 4 ~ 24.

코로나19상황 긴급노사협의회 3차례 진행
임신노동자 선제적 재택근무 도입 등 성과

2020. 2. 7 ~ 11.

보도기술국 여성숙직실 신설
신관 3층에 공간 확보 및 연내 공사완료

2020. 2. 10~ 14.

보궐 이사 선임 시 정당추천 관행 타파 투쟁
천영식 사퇴 이후 구) 자유한국당 추천 부적격 이사 2명 저지
(이현 변호사, 이동욱 前 월간조선 기자)

2020. 3. 16 ~ 4. 9.

KBS지배구조 개선 논의 본격화
언론노조, 21대 총선 미디어 정책협약에 반영
① KBS 이사추천 정치적 배제 법제화
② 이사 사장 선임 시 국민 참여 법에 명시
③ 이사 사장 선임 시 투명성 확보
8개 정당에 제안, 여당 등 5개 정당과 협약 체결



2020. 4. 3 ~

복지자금 준비금 고갈 문제제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 및 협회에 해결 촉구



본부장 칼럼

밥 굶기보다 체질 개선

안녕하십니까? 길고 긴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느라 모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의 비상조치에 불안해 합니다. 비상조치의 방향은 직무 재설계, 재무적 위협에 대응이라고 합니다. 골자가 몸집 줄이기, 다운사이징으로 판단됩니다.

국민들이 코로나 19 때문에 나랏돈으로 힘겹게 생활을 이어갑니다. 숙박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격탄을 받은 국민들이 수신료를 냅니다. 언론사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긴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公社)라고 해서 울타리 밖 위기를 모른 채하고 작은 변화조차 하지 않겠다며 버틸 생각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변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측의 혁신 역시 진심을 담은, 어려운 길이어야 합니다. 위기를 넘기 위해 인건비 줄이기가 가장 쉽습니다. 인건비 감축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그 본질을 덮습니다. 일률적인 인건비 줄이기가 얼핏 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율이라도 임금, 연차가 낮은 직원 등 약자들에게는 감내할 수 없는 타격입니다.

2016년 이후 물가를 감안한 KBS 실질임금상승률 추정치는 -2.1%입니다. 직원의 희생이라는 단기처방으로 재정을 벗어날 수 있는 한계는 지났습니다. **직원의 고통은 위기를 벗어나는 수단이 아니라 위기 자체입니다.** 경영실패가 인건비를 줄이는 손쉬운 조치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저지할 것입니다.

인건비를 손대기보다 **조직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밥을 굶기보다 체질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수익 창출과 공적책무를 하는 핵심 조직을 구분하여 도담게 해야 합니다. 문제가 부서 간 기능과 성과의 불균형이었다면, 이를 해소하는 조치는 선별적이어야 공정합니다. 이제 KBS는 성과, 능력과 상관없이 고비용 조직을 유지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분투하는 그룹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혁신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작년에 전략기획실에서 전 사원을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186건의 아이디어가 모였지만 한 건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혁신 의지를 가진 직원들이 쏟은 시간, 공모를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면 큰 손실입니다. 각 본부가 공모의 주체가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본부마다 절실한 혁신 주제를 정하고 공모된 아이디어를 실천했으면 작은 변화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사단계에 이르러서야 투입된 실무부서장과 아이디어 사이에는 방향과 수준, 실행 의지 면에서 접점(接點)이 없었습니다.

본부와 별도로 혁신추진부가 재구성되었습니다. 혁추부의 활동이 작년 비상경영계획과 유사하게 일과 비용을 조금씩 덜어내는, 마른 수건 짜내기 수준에 머무를까 걱정됩니다.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0개의 회사를 만들었다 부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부른 재정 위기가 아니더라도 경영진은 위기를 예측하며 각 본부가 혁신을 일찌감치 고민하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아쉽게도 각 본부는 혁신안에 대해 방관자에 머무는 형세입니다. 조직 논리에 함몰돼 변화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혁신이 또 없다면 경영진의 리더십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원들의 공감대는 혁신의 필수 조건입니다. KBS가 다른 부지로 이전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바뀌어도 여전히 공영미디어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영미디어로서의 기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책무를 다하겠다는 사원들의 정신 집합체가 바로 KBS입니다. 회사는 위기상황일수록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비전을 보이며 정신을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모두가 근무를 기피하는 전함이 있었습니다. 신입 함장은 선원 전원에게 만족스러운 것과 불만인 점, 그리고 전권(全權)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구성원의 답을 바탕으로 운용하니 무적(無敵)의 전함이 탄생했습니다. 경영진이 사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혁추부라는 밀실(密室)에서 구성원들을 비용 면에서 저울질한다면, KBS호는 불화 속에서 방황할 것입니다.

히노 에이타로라는 작가는 경계해야 할 사원 유형 중 하나로 하치코형 사측(社畜)을 꼽습니다. 하치코는 세상을 떠난 주인을 계속 기다렸다는 일본의 충견(忠犬) 이름입니다. 하치코 타입은 일개 사원 주제에 경영자 마인드로 일하며, 동료들에게까지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사랑도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사원들에게 회사가 침몰하려 할 때, 과감하게 배를 갈아타라고 합니다. 공영방송인의 정신 집합체인 KBS에서는 선택하기 힘든 길입니다.

노조위원장이 변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측(社畜)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미래를 책임질 그룹과 약자, 그리고 구조조정 같은 극한 사태 방지를 떠올리며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동료들과 변화의 방향에 대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사측의 진심을 기대합니다. 사람이나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강한 조직체를 만드는, 어려운 길을 감으로써 진심을 보이십시오. 필요한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밥을 굶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본부장 유재우